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5호 [루게 제2208호]

주제 102
(2013). 1

26
토요일

음력 12. 15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에서 건설하고있는 대성산종합병원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건설하고있는 대성산종합병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종합안내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잠시간에 걸쳐 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중앙홀에 들어서시여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보다 아끼지 않으시고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 주신 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대성산종합병원이 일떠설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앙홀을 돌아보시면서 지난해 이곳을 돌아보면서 강

조하였지만 병원은 번듯하고 멋있게 꾸리는것과 함께 모든 요소들을 의료사업과 환자치료에 유리하게 꾸리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중앙홀을 지나 약재주는 곳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약내주는 곳》이라고 쓴 명찰을 보시고 명찰들에는 우리 글과 함께 국제공용표기도 함께 해주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북도를 걸으시면서는 벽면에 해당과들의 의학상식을 소개하는 직관판들을 잘 만들어 게시하며 의자들도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내시경과, 실험과에 들리시여 설비들의 특성과 시공정형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술실에 들리시여서는 수술실에는 수지단판을 붙이는것이 좋다고 하시였고 집중치료실에 들리시여서는 침대에 몸소 앉아보시며 실시간감시체계가 되어있는가도 물어주시면서 이만하면 펜

찮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복부외과의 공간리용을 아주 잘했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물을 일떠세울 때 용도와 특성에 맞게 공간리용을 잘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설계와 시공을 바로하고 준공검사에서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 수술실을 돌아보시면서 무균화, 무진화가 철저히 보장되었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였으며 입원실에 들리시여서는 환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온화하면서도 깨끗하게 잘 꾸리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팔조만 서있을 때에는 병원답지 않고 불빛이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때뻗이를 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 평양시의 중심에 아동병원과 구강병원, 기능회복

센터를 건설하게 되는데 대성산종합병원을 건설하면서 얻은 좋은 경험을 받아들여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아동병원과 구강병원, 기능회복센터건설은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해당 부문에서는 지금부터 잡도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원건설을 마무리하면서 환자들이 산책도 할수 있게 정각도 세워주고 나무도 많이 심어 휴식공간을 잘 조성해줌으로써 병원으로서의 멋이 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사랑과 은정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대성산종합병원관리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내각과 보건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에서는 대성산종합병원을 정상운영, 정상

가동할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의학부문의 과학화, 정보화수준을 더욱 높여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개선을 가져올데 대해서도 말씀하시였다.

의학부문에 과학화, 정보화수준을 높이자면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 국가적인 의학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하여놓고 병원이나 진료소와 같은 말단보건기관들에서도 그 자료들을 적극 리용할수 있게 종합적인 망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늘 대성산종합병원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462군부대에 감사를 주시였으며 건설이 완공되면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본사기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서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는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경지에 올려세운 민족사적대승사이며 세계가 공인하는 평화적인 우주개발계획의 쾌승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세상사람들은 한결같이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놀라운 성과에 대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있다.

남에 대한 거부감에 물젖어있는 적대국의 전문기관들도 도고한 자세를 굽히고 크게 성공한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를 넘기며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발사》로, 유엔《결의》에 대한 《관폭탄 파기행위》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매도하면서 그것을 여론화해오던 끝에 드디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우리에게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미국이 주동이 되어 막후교섭으로 골격을 만들고 맹종으로 체질화된 성원국들이 허대비처럼 손을 들어 채택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번 《결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새로운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또한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 서야 할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놀라워 지켜야 할 초보

적인 원칙도 서슴없이 꺾버리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더우기 성원국들의 자주적권리와 안전보장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아야 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까지 아무런 기대도 걸수 없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국제기구로 전락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천만부당한 대조선《결의》가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1.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채택한 불법무법적인 모든 대조선《결의》들을 전면배격한다.

우리는 애당초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온갖 형태의 비법한 《제재결의》라는것들을 인정해본적이 없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권을 잃은 나라와 민족은 살아도 죽은것이나 다름없다.

위성발사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적권리이며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인 주권행사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기성의 위성발사국들이 간섭할 아무런 명분이나 리유도 없는것이다.

제가 발사한것은 위성이고 남이 발사한것은 장거리미사일이라고 강변하는 낱장도적인 주장이 이 밝은 세상에서 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저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이다.

미국은 시대도 달라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도 달라졌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거룩적인 투쟁속에서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지구위성은 우주공간으로 더욱더 독립없이 세차게 솟구쳐오르게 될것이다.

2.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이상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비핵화 실현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며 그것을 안받침하고있는 미국의 방대한 핵무력이다.

따라서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행해나갈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있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될수 있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찾은 최종결론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유린에 앞장서고 그 추종세력들이 거기에 동조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기구로 완전히 타락인된 마당에서 6자회담도, 9.19 공동성명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세상에 선포한다.

앞으로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상정되는 대화는 더는 없게 될것이다.

3.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것이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위험한 단계이다.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나라의 최고리익이 깃밟히는것을 뻔히 보면서 수수방관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목숨보다 귀중한 자주권을 수호하고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될것이다.

천만군민의 경제강국건설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주정복투쟁도,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제력강화도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지향되고 북돋워진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가지 위성

과 장거리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

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고있는 미국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

세계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길로 폭풍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온갖 적대세력들을 정벌하고 최후승리자가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제102(2013)년 1월 24일 평양

조선 유엔안보리사회 《결의》 배격, 핵억제력을 강화할것이라고 강조

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여러 나라 통신, 방송이 보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관폭탄 침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낸것과 관련하여 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23일 여러 나라 통신,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반도비핵화노력이 종말을 고하였다고 선언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위성은 성명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고 밝혔다.

성명은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은 또한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용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의 핵무력은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갈것이며 적대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 근원을 송두리채 없애 버리는 중대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미국의 폭스뉴스TV방송, 블룸버그통신, 영국의 BBC방송도 북조선이 지난해 12월의 로켓발사와 관련한 유엔의 조치에 대응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확대강화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하면서 공화국 외무성 성명내용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황해남도 신원지구에 세멘트공장 새로 건설

황해남도의 신원지구에 세멘트공장이 새로 건설되었다. 공장 건설이 임박됨으로써 도의 경제발결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공장 건설이 임박됨으로써 도의 경제발결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공장 건설이 임박됨으로써 도의 경제발결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열의안고 과자생산을 늘이고있다.

—평양일가루가공공장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

6.15공동선언은 불신과 반목, 대결의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현강령이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지금까지 년대를 거치며 각급에서 이룩된 북남합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으며 그것은 북

남관계의 근본원칙과 기초를 이루고있다. 불신과 대결이 흐르던 이 땅에 6.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지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 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된것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안아

때에만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파감하게 전진해온 겨레의 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리명박보수 《정권》이 출현하면서부터 불신과 대결의 악

적도발책들을 련이어 벌리면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하였다. 리명박보수 《정권》의 극악한 반통일대결방도는 북남공동선언들의 근본정신과 겨레의 통일지향에 전면배격되는 민족반역행위로서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어떤 해일도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견제책들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을 가로막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무시는 곧 자주통일에 대한 부정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데 북남관계의 전진과 조선반도의 평화, 조국통일이 있다.

본사기자 윤현주

은 자랑한 결실이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남사이에 진행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키는 데서 특기할 민족사적사변으로 된다.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6.15시대를 통하여 우리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할

순환을 거듭하였다. 집권초기부터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해 《부도난 약속어음》이니, 《대남전략의 산물》이니 하며 악랄하게 헐뜯은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은 6.15이후 출기차게 진행되던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사업들을 모조리 차단하였다. 지어 침략적인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모략책동과 군사

인공위성발사는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주적권리행사이다

유엔안보보장리사회가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와 관련하여 22일 그 무늬 《대북제재결의안》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미국의 주도하에 그 추종세력들이 이리저리 살을 붙여 꾸며낸 이 《결의안》은 공화국의 평화적인공자위성발사를 비법화하고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제재》강화를 노린 포악한 적대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 이것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유린하는 파렴치한 날강도행위이다.

제무대에까지 《제재》소동을 피우고있다.

미국이 인공자위성발사를 특정국가의 독점물로 여기면서 자기에게 아부골종하는 추종세력들의 인공위성발사는 합법적으로 대하면서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나라의 위성운반로케트는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전환되어 《위협》으로 될수

있던 인공위성을 온갖 괴담과 《제재》, 압살의 대상으로 추추해온 공화국이 100%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으로 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자위성발사를 성공시켰었으니 아마 미국은 백악관이나 국방성의 지붕위에 폭탄이 떨어졌어도 이만큼 놀라지 않았을것이다. 미국이 공화국에 《미사일

과적으로 발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슨 큰 사고나 발생했듯이 주변국들과 상전인 미국을 찾아다니며 《북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분주량을 피웠다.

사실 공화국의 인공자위성의 성과적발사를 두고 우리 민족은 물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도 반만년

쇄와 제재》소동에 맞장구를 치고있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옥소리뿐이라고 집권 5년간 동족대결만 일삼아온 리명박패당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수 없다는것은 자명한것이다. 이로써 리명박 《정권》은 조선민족의 피라고는 꼬물꼬물도 없는 민족반역아들의 무리라는것이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되었다.

공화국은 국방위원회성명과 외무성성명들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도발소동에 그 근원을 송두리채 없애버리는 중대조치, 전면대결전으로 대담할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였다.

공화국은 절대 빈말을 하지 않는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유린하려는 범죄적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것은 공화국의 기질이며 의지이다.

공화국은 그 누가 뭐라고 하는 평화적인 위성발사국의 지위를 끝까지 지킬것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는 적대세력들의 행동을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 변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선택은

김태룡

우리의 위성이 솟구쳐오른 하늘가에
오늘은 억척불변의 기개 치솟는다
그 누가 뭐라고 떠들어대도
그 누가 또다시 《제재》를 들먹이든
달라지지 않으리라 우리의 선택은

《제재》와 압력이 가중될수록
천만군민이 하나같이 일떠서
목숨같이 지켜가는 우리의 존엄

이제 세계는 보게 되리라
미국의 명줄을 겨냥한
우리의 강력한 운반로케트가
멸적의 의지를 백배로 만장약하고
또다시 우주로 날아오르는것을

활화산처럼 리저오르는
위성발사의 불길로
《제재》의 장막을 산산이 불태우고
은 세상을 활리딩고 산아오를
우주강국 조선의 강대한 모습을

정명 세계는 보게 되리라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
폭풍쳐 일떠선 무진막강한 힘
자주권수호의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후결산을 하는지

오, 세상천지가 다 변하고
그 어떤 광풍이 불어쳐와도
우리의 선택 그것은 정의
우리의 선택 그것은 자주
그 정의의 힘 그 자주의 위력으로
조선은 불변하리라 조선은 승리하리라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는 파렴치한 날강도행위

다 아는바와 같이 우주공간의 평화적개발 및 리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절대로 문제시될수 없다.

더우기 우주개발리용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오늘날의 여러 나라들에서 우주를 정복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인공자위성발사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대북간란도미사일시험》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세계여론을 오도하며 국

있기때문에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할수 없다는 이중자대를 국제무대에서 마구 휘두르는것은 오만무례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공화국을 압살하고 전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은 미국이 시종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공화국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인공자위성발사로 미국의 대조선괴담 압살정책에 커다란 파궤구가 마련되었다.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몇몇 나라들의 소유물로만 되어

발사국, 《핵위협》이라는 울가미를 씌워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유엔안보보장리사회까지 내세워 《제재》소동을 벌이고있는 데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야망이 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 《대북제재결의안》조작에 리명박보수 《정권》이 돌격대로 나서 실례발을 친것이다.

집권말기에 이르러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리명박보수패당은 공화국의 《광명성-3》호 2호기가 성

력사에 특기할 경사로 모두가 기뻐하였다. 인공자위성발사의 성공으로 인공위성제작국, 발사국, 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보면서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간직하게 된 전체 조선민족이다.

리명박보수 《정권》은 민족의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에 대하여 축하하는 못할말정 유엔안보보장리사회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는 얼빠진 소리를 내뱉으며 나중에는 외세의 《봉

본사기자 리광성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존엄인 인공자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를 두고 《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니 뭐니 하면서 이번에 끝끝내 공화국을 《제재》하는 유엔안보보장리사회 《결의》라는것을 채택케 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에 나를 비롯한 조선민족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전체 성원들은 물론 나라의 전체 녀성들, 온 민족이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해고있다.

누구는 인공자위성은 물론 핵이나 미사일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쏘올려도 되지

만 누구는 그렇게 할수 없다니 이런 이중기준, 이런 강도적로리가 또 어디에 있는가.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미국의 장단에 춤추며 동족을 압살하지 못해 안달아

그 력사의 수난속에서 우리 녀성들은 또 얼마나 민족적 열의와 학대를 받으며 소중하

들의 책동은 또다시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노예가 되라는 강요나 다름없는것이로. 우리 녀성들은 이를 절대 용납할수 없다. 약소민족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강대한 민족으로 세계 앞에 등장하려는 민족의 자주적인 권리, 이는 절대로 양보할수도 침해할수도 없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어떤 《제재》를 가하든 우리의 위성은 민족의 존엄과 공지를 우주에 새기며 무수히 날아올것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원 한은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의 성공적인 인공자위성발사를 문제시하면서 유엔안보보장리사회 《결의》라는것을 채택하였다는 소식은 지금 우리 수백만 청년대학생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로 제작되고 성공적으로 발사된 《광명성-3》호 2호기는 철두철미 평화적인 실용위성으로서 문제시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 실제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한결같이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반만년민족사에 기록할 또 하나의 특대사건으로, 민족적경사로 경축하면서 우주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조선민족으로서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남조선의 리명박정권이 감히 그 무늬 《대북제재결의》니, 《국제사회공조》 제국주의자들의 항시적인

불순한 목적을 노린 행각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캠벨이 이끄는 미국정부합동대표단이 서울을 행차하였다.

남조선에서 권력이 바뀌는 때에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성의 고위인물들로 꾸러진 미국정부합동대표단이 남조선을 행차한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행각기간 그들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통일관계 장관들과 다음이 《정부》의 《대통령》당신자 등을 차례차례 만나 이리저리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자주민주》는 1월 15일 발표한 글에서 이번 미국정부합동대표단의 방문을 두고 미국이 남조선과 일본간 군사협력의 지속한 재추진을 요구할 의지를 가지고있다고 하며 《미국은 《한》 일군사 정보보호협정체결을 통한 동북아MD구축, 《한》 미일 연합군사훈련 등의 다방면적인 군사협력을 통해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북에 대한 포위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한》 일관계를 조종하고 관리하는데 적극 나서고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서 여기에는 마땅한 근거가 있다.

우선 미국조사단은 이번에 남조선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남조선과 일본이 궁정적인 관계 유지하는것은 쌍방에 최선의 리익》이라고 하는 등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불미한 관계의 개선을 부추기는 이른

바 중재인역할을 하기에 치중하였다.

서울 행 각 전야 부터 《《한》 일관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한바 있는 캠벨은 여러 면담들에서 남조선과 일본의 관계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거듭 력설하였다. 물론 일본에 건너가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는 독도문제와 력사문제 등으로 악화된 남조선 일본관계로 하여 《3각군사동맹》구축에 영향을 받게 된 사태를 시급히 수습해버리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으며 그 수법 또한 《3각군사동맹》에서 차지하는 저들의 지위에 맞게 혼신과 압박이였다.

협력과 관계개선의 골자는 명백히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과 협조관계에 앞서 군사적협력과 공고한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3각군사동맹》의 구축과 완성이다. 이것이 무엇에 의미하는가 하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것이다.

실지로 미국정부합동대표단은 《《한》 미동맹의 기반이 쌍방안보관계라는것을 잘 알고있을것이다.》, 《미군은 앞으로 다음이 《한국정부》와 군현대화 등에서 협력관계개화를 기대하고있다.》는 립장을 분명히 내비치었다.

근간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이런 강한 의

지와 실천적움직임을 더 잘 알수 있다.

최근년간 잡다하게 벌어진 남조선미국, 남조선미국일본간의 합동군사연습,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미국의 배후조종, 《글로벌 호크》(무인정찰기), 《F-35》(전투기)와 같은 미국산 무기판매책동 등으로 미국은 《3각군사동맹》의 구축과 그 완성에 주력하면서 남조선과 일본을 코에 끼고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고있다.

이번에 남조선에 련이 있는 일본행각에서도 미국정부합동대표단은 현 일본정부의 방위협력지침개정협약의와 관련한 집단자위권유인 등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

남조선과 미국, 일본간 군사동맹의 주제는 타적목표는 언제나 공화국이며 나아가 초래될것은 동북아에서 군사적긴장과 군비경쟁의 촉발이다. 그것은 기밀코 전 쟁과 파궤를 불러오며 이로써 《3각군사동맹》구축이 가져다줄 후과는 참으로 파국적이다.

대결이 아니라 대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와 동북아시아정세의 안정과 완화를 바라는 이 지역 인민들의 시점에서 볼 때 이번 미국정부합동대표단의 서울방문은 매우 위험한 범죄행각이 아니수 없다.

본사기자 김련옥

남조선간호원들 노동권보장을 요구

남조선의 경상남도 진주시 간호원들이 노동권보장을 요구하여 16일 진주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발언자들은 지난해 12월 25일 진주시청이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직업에 종사하던 간호원들에 대해 별도로 제계약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밝힌 사실을 폭로하였다.

결국 기간제계약안이라는 이유로 간호원들이 추운 한겨울에 거리로 내몰렸다고 그들은 개탄하였다.

그들은 이번 조치는 부당한 해고행위라고 하면서 이에 항의하여 통성투쟁에 돌입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노동운동에 대한 당국의 폭압을 규탄

남조선의 《정리회고, 비정규직, 로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가 17일 서울 광화문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노동운동 탄압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당한 죽음을 《정부》와 자본에 의한 학살이라고 단죄하였다.

당국이 노동운동 탄압을 중지할데 대한 요구를 외면하며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대규모투쟁에 나설것이라고 단체는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환경단체들 역도의 사죄를 요구

남조선 《KBS》방송에 의한 남조선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개 단체가 18일 서울의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리명박역도를 단죄하였다.

단체들은 4대강을 정비한다 하던 남조선의 환경운동연합은 미명하에 강행된 공사가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였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이번에 감사원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4대강정비사업》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도부를 비롯한 《정부》의 부, 처들간의 갈등과 알뜰도 심해져 퇴임을 앞둔 리명박을 막다른 곤경에 몰아넣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4대강정비사업》은 남조선당국이 독선적으로 강행추진했던 《대대강정비사업》의 변종으로서 《수질개선》과 《홍수피해방지》,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위극》을 노리는 것이로

민심을 무시하고 억지로 하는 일이 제대로 될수 없는것처럼 경제효과성과 환경보호라는 교묘한 의미를 벗어나 순수 리기적인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다보니 오히려 그것은 인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실례로 4대강사업으로서 울, 인천, 경기도의 2 200여 만명 주민들에게 음로수를

하거나 그대로 땅속에 묻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4대강공사장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사지역의 수많은 농민들이 농사지를 땅을 잃어버리고 졸지에 《실업자》로 굴러떨어져 삶의 보금자리를 빼고 한지에 나앉게 되었다.

이것은 4대강공사로 인한 피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싶이 4대강사업은 독재 《정권》의 치적쌓기, 정치적야망의 산물에 불과하며 시작부터 민심을 기만우롱하는것이였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 이번에 감사결과를 통해 인민들이 감수하면서 정치적협잡과 모략술로 잔멸을 부지해가던 리명박보수당국의 반역적정체가 다시 한번 날날이 드러났다.

일이 안되려면 문앞에 와서 물동이 깨진다는 말이 있다. 4대강사업을 불순한 정치적야망 실현에 써먹으려던 리명박이 그 덕을 단단히 보고 안장을 꺾는셈이다. 그것이 집권 후 안정을 꾀하는 리명박의 면전에서 폭로되었은즉 그의 처지가 그야말로 가련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주광일

양보할수 없는 권리

남조선보수패당의 어처구니없는 책동이다.

얼마나 궁지나고 자랑스런 우리의 위성이니.

위성발사로 조선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하늘에 닿았다.

지난날 약소국의 실용을 안고 대국들의 틈새기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우리 민족,

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힘을 과시한 이번의 장거를 민족의 자량으로 간주하는것이 마땅하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 무덤 《위협》라령으로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리사를 말고 대국들의 틈새기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우리 민족,

말고 대국들의 틈새기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우리 민족,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반대! 북미회담 및 6자회담 재개! NO! U.S.-Japan-S.Korea military alliance. Start 6-party talks!

그리던것이 이번에는 180° 립장을 전환하여 처음으로 상반되는 결과를 발표한것이다.

리명박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감사결과를 내놓는데 대해 정치적

《치적》이 아니라 범죄이다

《치적》이 아니라 범죄이다

— 감사원 결과를 두고 —

공공하는 수천지인 팔당언제물에 특색마름류(특조)현상이 나타나 음로수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특성물질이 많이 포함된 남색마름류현상까지 겹쳐서 서울지역의 5개 뽕조장가운데 3곳이 물공급을 중단할 형편에 처했다.

뿐만아니라 생태환경이 파괴되어 수심중의 동식물이 멸종되고 4대강과 그 주변지역은 동식물들이 살기 힘든 죽음의 지대로 전락되었다.

공산정권들에 대한 력사유적, 문화재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 청동기시기의 문화유적과 삼국시기의 귀중한 력사유물들이 침수될 위험에 처



모 관 봉 경 화 경 의 설 경 본사기자 동창현찍음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말타기

슬기롭고 애국심이 높은 우리 선조들은 일찌기 고대로부터 나라방위를 위해 활쏘기, 칼쓰기와 함께 말타기 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 왔다.

특히 어려서부터 말타기를 생활화하고 있던 고구려사람들에 의해 말타기기술은 크게 발전하였다. 약수리무덤 벽화와 덕흥리무덤 벽화를 비롯한 고구려무덤벽화들은 말을 타고 질풍같이 내달리기도 하고 달리는 말우에서 창과 칼을 제치있게 휘두르며 활로 목표물을 쏘아 맞히는것을 겨루는 용맹한 모습이 생동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말타기를 즐겨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발해에서도 말타기가 널리 진행되었는데 옛 기록들에 발해사람들이 《사냥과 말타기로 락을 삼았다.》고 한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발해사람들은 말우에서 재주를 부리면서 긴 나무봉을 가지고 공을 치는 격구를 널리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일본에 까지 전해져 왜인들의 경란을 자아냈다.

그후 말타기는 고려시기와 리조시기에 더욱 발전풍부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마상재라는 말타기종목이 널리 진행되었다. 마상재의 기본동작들은 달리는 말우에서 거꾸로 서서 달리기, 말등우에 가로놓기, 말옆구리에 몸을 숨기고 달리기, 말등우에 뒤로 누워 달리기, 말

1마리 혹은 2마리를 다루면서 말등을 넘나들기 등이 있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당시 말타기가 매우 다양하고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말타기는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문화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었다.

슬기와 용맹을 과시하는 우리 민족의 말타기는 오늘날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평양시외에 승마구락부가 훌륭히 개건되면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찾아오게 될것이다.

컴퓨터마우스조종과 건강

원손으로 마우스를 다루는것이 척추와 관절, 근육에 리롭다고 한다.

자료를 의하면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는 27명의 오른손잡이들에게 한달동안 컴퓨터마우스를 원손으로 조종하게 하였다.

결과 어깨와 팔, 손목의 운동회수가 줄어들었고 이 부분들의 운동진폭이 보통때보다 훨씬 작아졌다.

컴퓨터마우스를 원손으로 조종하는것이 유리한것은 표준컴퓨터건반이 비대칭적이기때문이다.

컴퓨터건반의 기본부위에 는 문자 및 수자건들이 몇줄로 배열되어 있다. 건반은 왼쪽에서 기능건 한줄로 끝나지만 오른쪽에는 3줄의 기능건의외에 4줄로 된 수자건들이 있다.

때문에 오른손은 자기의 기본위치로부터 더 많이 벗어나며 마우스를 다루는 등 많은 동작들을 수행하게 된다.

실례에 동원된 사람들은 한달내에 원손으로 마우스 조종을 재치있게 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약효를 나타내는 5가지 부산물

- 1. 고추잎**
고추잎에는 칼슘과 카로틴, 여러 종의 비타민 그리고 기타 영양물질들이 풍부히 들어 있다. 일상적으로 고추잎을 먹으면 맹을 뽑고 위를 덥히며 간을 보호할 수 있다. 고추잎을 적당한 량 먹으면 위액분비가 촉진되어 입맛을 돋우며 위위약과 소화불량 등을 치료할 수 있다.
- 2. 굴속섬유질**
굴살질면의 하얀 섬유질은 루틴이라고 부르는 비타민이 들어 있는데 이 비타민은 혈관의 정상적인 탄성과 밀도를 보장하고 혈관벽의 스킴성을 줄이며 모세혈관의 괴사, 뇌출혈, 망막출혈 등의 증상을 막아 준다. 따라서 평시에 출혈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병치료에 도움이 된다.

- 3. 물고기는**
물고기는, 특히 참치와 다랑어눈에는 DHA와 EPA 등과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 천연물질은 뇌의 기억력과 사유능력을 높이며 기억력퇴화과 콜레스테롤수치증대, 고혈압 등 여러 질병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 4. 물고기비늘**
영양학자들은 물고기비늘이 페시틴과 여러 불포화지방산뿐만 아니라 각종 광물질, 칼슘, 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특수한 보건제품으로 된다는것을 발견하였다. 물고기비늘은 기억력을 높이고 뇌세포의

로화를 지연시키며 혈관벽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의 량을 줄여 피순환을 촉진시킨다. 이밖에 또 어린이구루병과 골소송증,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 5. 뼈**
뼈는 고기보다 영양가가 더 많다. 돼지뼈와 신선한 돼지고기의 영양성분을 비교해보면 뼈에 들어 있는 단백질과 칼, 나트륨의 량이 돼지고기와 닭알보다 2배 더 많다. 또한 린이나 칼슘함량도 한 리라 식재료들과는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더우기 중요한것은 뼈의 영양성분이 식물성식품보다 인체에 더 쉽게 흡수된다는것이다.

본사기자

◎ **다지할수 있는 재봉기**
프로그래밍 전자재봉기가 개발되었는데 그것은 조종대에서 건반을 누르기만 하면 지정된 재봉작업이 진행된다. 재미있는것은 재봉기가 재봉을 완성한 후에는 옷에 사람의 이름을 찍어내는데 필적이 정확한다.

◎ **음성으로 조종할수 있는 재봉기**
이 재봉기에는 현대의 극소형컴퓨터가 내장되어 있기때문에 16종의 언어를 듣고 리해할수 있으며 120종의 무늬를 재봉해낼수 있

고 사용할 때 다만 지령을 한번 누르기만 하면 자동조작된다.

◎ **노래를 부를수 있는 재봉기**
이 재봉기는 봉조, 수놓

고 유연하며 듣기 좋은 너차음성으로 조작방법을 매우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 재봉기는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할 수 있다.

◎ **초음파재봉기**
초음파재봉기는 바늘과 실을 쓰지 않는 패속재봉기로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초음파진동으로 옷을 재봉한다. 1분당 15m의 길이를 단번에 재봉할수 있다. 이러한 재봉기는 옷 만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원가를 낮추며 옷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로 화를 지연시키며 혈관벽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의 량을 줄여 피순환을 촉진시킨다. 이밖에 또 어린이구루병과 골소송증,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 **유모아**
농민이 미덥지 않다는듯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시우?》 《그거야 아주 간단하지요. 그래 당신은 토끼가 안나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삭갓철은 이 제일 맛있는 철은 겨울 봄이라고 생각하지만 봄철에는 벌레 삭갓의 생장기가 끝난다.

◎ **삭갓이 가장 맛있는 철은 겨울철**
삭갓은 추위가 심해질수록 그 맛이 더 좋아진다. 삭갓



유모아 틀림없는 일

한 시골의사가 농민들앞에서 열성스레 의학지식선전을 하였다. 《홍당무는 시력병 등을 막는데 훌륭한 남세의 하나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삭갓철은 이 제일 맛있는 철은 겨울 봄이라고 생각하지만 봄철에는 벌레 삭갓의 생장기가 끝난다.

◎ **삭갓이 가장 맛있는 철은 겨울철**
삭갓은 추위가 심해질수록 그 맛이 더 좋아진다. 삭갓

본사기자

단편 소설

2

인숙은 작고한 남편이 물려준 독재에서 취미로 그림이나 그리며 조용히 살아가는 50대의 동로녀인이었다.

경아가 처음 그 녀인을 알게 된것은 6.15북남공동선언소식을 들은 교포들이 기쁨에 넘쳐 떠들썩하게 춤판을 벌려놓았던 어느해 여름이었다.

그날 처녀는 녀성과도 교제하는것을 삼가하던 아버지가 압전하고 순박해보이는 한 녀인과 짝을 짓고 흥겹게 춤추고있는것을 놀라게 바라보았다.

그후 그 녀인은 아버지의 사무실에, 그 다음은 경아네 집에 수집은 미소를 머금고 나타나곤 했다.

그녀는 날은 경아네 집의 명절이었다.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손수 앞치마를 거뜬하게 두르고 외동딸을 키우며 떠들썩한 리리춤을 있는것 발휘하여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경

무 지 개 (2)

글 류원규, 그림 김윤일

아더러 집안을 깨끗이 거두라고 재촉했다. 그러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기름내 쫓기는 옷을 제껴 고급양복으로 갈아입고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채 맞이하곤 했다.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인숙은 신문사가 어려움을 겪을적마다 성의껏 도와주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주로 6.15소식과 신문사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치빠른 경아는 그 녀인이 단지 신문열성독자의 자격으로 아버지를 찾아오는것이 아니라라는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꿈중 갑자르다가 물어보는것이였다. 《애야, 네가 보기에 그 녀자가 어머냐?》

경아는 모르쇠하고 속눈썹을 울려댔다. 《누구말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그 있지 않나. 인숙부인

아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 다름아닌 인숙이었다. 그때까지도 처녀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이처럼 슬퍼하던 고인의 무얼한 가족인 경아와 함께 며칠밤을 새우던 그 녀인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생생히 남아있었다.

그렇지만 인숙의 집을 나설 때 경아의 손은 비어있었다. 《어떻게 하든 후에 꼭 보내주겠어요.》 인숙이가 몹시 미안해하며 한 말이였다.

그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 아직 기다리라는 대답이였다. ...

사연을 듣고난 병화는 알만 하다는듯 희미하게 웃었다. 《불교세계에 이런 격언이 있지요. 《동정심이 깊은자는 부자가 될수 없다.》》 《?!》 《사장님은 정말 순진하군요.》

경아는 살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병화의 말을 따르면 인숙은 돈을 깔고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댔다는것이 아닌가. 그게 사실일까?

인간의 감정이란 정교한 유리그릇과 같아서 한번의

충격에도 금이 가는 법이다. 경아의 경우가 그러했다. 지금까지 그는 인숙에 대해 호감을 품고있었다. 그랬으나 자기보다 생활경험도 많고 더우기 앞으로 의지해야 할 병화한테서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보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 부인은 충분히 그럴수 있어. 우리 집과 그 부인사이에 관계가 깊어진것은 아버지라는 큰 매듭이 있

적의무가 없는거야. 결국 그가 기다리라고 한것은 돈을 줄수 없다는 말을 차마 할수 없어서 둘러댄 말이였어. 아, 그런줄도 모르고 난...) 경아의 어두워진 얼굴을 살펴본 병화가 우선우선하게 말했다.

《너무 격정마십시오. 종이상조 맞으면 가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왔 습니다.》

병화는 웃었다. 《서울에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곳에 자기네 새끼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상품광고를 《무지개》에 실어주면 사장님이 요구하는 자금을 용자해주실겁니다.》 경아는 안라까운 기색을 지었다. 《헌데 지면이 어디 있어 야지요? 그야 편집부장님도 아시지 않아요.》 《하긴 그렇죠. 그럼 어떤 다?》

생각을 굴리던 병화가 고개를 버쩍 들었다. 《참, 6.15투입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어떻게...》 망설이고있는 그의 머리속으로 병화의 말소리가 비집고 들어왔다. 《그 심정은 리해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어디 그럴수니까? 그래도 그 좁한데 실려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요. 그리고 이긴 사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일 이것저것 따지다가 신문사가 파산당하면 부친앞에 어떻게 머리를 들겠습니까?》

경아는 속이 뜨끔했다. 그의 말이 열번백번 유포던것이다. 불현듯 눈앞에 마지막술을

몰아쉬던 아버지의 모습이 안겨왔다. 《경아야. 어떤 일이 있어도 신문사를... 그럼 이 아버지는 죽어...》

경아는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림종을 앞두고 신문사를 부랴했다. 그 《무지개》가 지금 칼도마우에 올라섰다. 만일 병화의 제의를 거절한다면 신문사는 끝장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섣뜻 결심을 내리기 힘들었다. 병화의 손전화가 아무지계 울었다. 《주세무국이라요? ...》 한동안 상대방과 옥신각신하다가 손전화를 품속에 찔러넣는 병화의 눈빛은 밝지 못했다. 《무슨 일이에요?》 《이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남은 옛세동안에 남세할지 아니면 신문사세산을 동결시키고 사장님은 탈세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합니다.》

경아는 눈앞이 캄캄했다. 우려했던 문제가 눈앞에 닥쳐온것이다. 자기가 기소되는것은 두렵지 않았다. 진짜 두려운것은 아버지의 심혈이 깃든 신문사가 풍지박산되는것이다. 출로는...

본사기자